

새롭고 놀라운 객체지향 음악 공연과 심포지엄을 한국에 선보이다

입력 : 2019-09-05 11:13 | 수정 : 2019-09-05 11:17

2019 서울 공간 음향 예술 심포지엄

06503 서울 언주로133길 11
지하철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에서 200m

PLATFORM-L
September 6-8

Fri 16:45-22:15
Sat 16:45-22:15
Sun 13:15-19:00

11 Eonju-ro 133gil Gangnam-gu Seoul 06503
200 meters from Gate 10 of Hak-dong Station (Seoul Metro 7)

https://ssasa.info

Symposium on Spatial Sound Arts, Seoul 2019

공간에 흩어진 연주자, 벽면과 천정의 스피커, 잠깐 음향 제어 장비, 연구자, 음악가, 예술가
관객을 만나다!

- 기조연설 : Robin Minard (캐나다)와 Lucy Gong (한국)
- 3차원 입체 음향 제어 워크숍
- 타이스크(인공)로 움직이는 소리 제형
- 최신 음향 제어 기술 동향 및 데이터 소리에 대한 연구 소개
- 음악회 3회로 연하는 20여 작품
- 설치 작품 전시

	Day 1	Day 2	Day 3
Installations	Chang-hoon Lee Jisoo Park & Sangun Park		
Workshops (w) / Keynote Speech (ks) Interpreting (English-Korean)	Robin Minard (w) Lucy Eunjung Gong	Robin Minard (ks) Lucy Eunjung Gong	Robin Minard (w) Lucy Gong
Seminars	Jiseong Oh	Sanghyoung Park	Jiho Hyun Daniel MacKowicz
Colloquies	All Participants	All Participants	All Participants
Interpreters	ensemble PHASE Jaeho Shim (dance)	Soo Ah Lee (violin) #FLUJUT The Members of Pan Asia Philharmonia	Hansoo Shin (clarinet) Hoonmin Park (bass)
Composers	Choon-Hee Jang Soon-young Park Robin Minard	Juhani Sivola Soo Jung Shin Rina Yu Sang M. Ahn Ernst van der Loo	Byungjun Kwon Robin Minard
	Mind Park Yemin Oh Chang Seok Choi	Hanshin Lee Tina Sorell Lange Dokyung Lee #FLUJUT	Kyung-A Park Per Magnus Lindborg Timo Dufner Wonilho Lee

Hosted and Organized by: Platform-L

Suppor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gruppe;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아틀라스 개방 데이터뱅크를 활용하여 음악으로 장안하거나 뇌파를 이용한 음악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객체기반 최첨단 네트워크 음향제어 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창작음악의 새롭고 놀라운 세계를 이제 서울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공간과 소리를 주제로 과학, 기술, 예술의 접점 ‘서울 공간 음향 예술 심포지엄’이 오는 6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의 기금 지원과 (주)사운드솔루션, 플랫폼엘, (주)에이엘그룹의 지원 및 새로운 음향 플랫폼에 활용할 국내외 중견작곡가의 작품 기증으로 비로소 본 심포지엄과 공연이 펼쳐지게 되었다.

심포지엄과 공연은 객석의 전·후·좌·우·천정을 에워싼 24대의 확성기와 지역확성기를 이용해 가상 공간에서 솔루션으로 소리를 제어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24채널 써라운드선 물론 확성기의 채널 수

와 상관 없이 3차원공간 좌표인식 및 제어로 소리의 위치와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는 기술과 작품을 소개한다. 첨단 음향기술의 최근 동향을 이해하고 음색의 진폭과 다양성이 풍부한 현대음악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음향연구가, 소리를 다루는 예술가, 관객 등 다양한 행위자와 연결되는 객체지향(object oriented)음악을 선보이는 국내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행사이다.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음악은 단지 음색을 탐구하는 악기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음악의 시간적 팽창과 공간적 음장감 및 공연장을 넘어서는 가상공간의 사변적 실재라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2007년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사변적 실재론(speculative realism)이라는 최신 철학의 예술적 접근에 부응하고 있다.

심포지엄 기획자이자 작곡가 고병량은 “전통 및 현대음악, 소리와 공간을 다루는 다양한 설치물, 데이터 소리화 등을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예술’로 묶어 다채로운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들의 장을 마련하고, 장비와 시설이 없어 최신 입체 음향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예술가에게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작품 창작과 연주 기회를, 청중에게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작품 감상을 제공하는 연례행사로 발전시키기”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한다.

이 행사는 세계적 명성의 음향 설치 작품 작가이자 작곡가 로빈 미나드의 기조연설과 2회의 워크숍을 비롯하여 관객 액션이 반영되는 설치(음악)작품 전시, 다양한 내용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및 좌담, 음악회가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